결렬 공포보다 2차협상 기대 우세, 금융주 1Q26 실적시즌 스타트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미-이란 협상 및 증시 낙관론 우세하며 증시 강세 전환

- 미 증시는 DOW +0.63%, S&P500 +1.02%, NASDAQ +1.23% 상승. 주말간 이란과의 협상 결렬, 미군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소식에 하락 출발했으나, 2 차 협상 기대 쪽으로 낙관론 확대, 증시 강세 전환
- 금융주를 시작으로 1Q 실적시즌 시작. 벨웨더 웰스 CEO 는 종전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발언. 그간 약세였던 S/W, 자산관리 등 업종 반등 뚜렷
- 월가 의견 대체로 우호적. 톰 리는 주식시장의 선반영 능력을 언급, 휴전의 긍정적 결말 기대를 반영하며 증시가 반등했음을 언급. UBS 는 역사적 패턴상 주식시장의 견고한 회복 가능성을 제시. 블랙록은 견조한 기업 실적 기대 기반, 시장 전망 상향

증시 반등의 트리거는 트럼프의 2 차 협상 시사 발언

- 주말간 미-이란 대면협상 결렬 후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대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선언, 지정학·공급망 불확실성 재차 자극
-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, 협상을 원하는 쪽은 이란 측이라는 취지의 발언.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둔 가운데, 이란 핵보유 차단이 협상의 주 목적임을 재차 명시. 이후 유가 상승폭 일부 되돌림, WTI $98(+1.5%)로 $100 선 하회
- 군사 갈등 재개가 아닌 경고, 압박 수준에 머무르며, 휴전기간내 추가 협상 개최를 위한 물밑논의중이라는 소식에 시장 우려 완화 양상. 외신에서는 이번주말 2 차 협상 가능성 거론

미 주택지표 부진 및 연간 전망치 하향

- 3 월 기존 주택판매 MoM -3.6% 컨센 하회, 9 개월래 최저치. 총주택재고 MoM +3.0%, 미분양주택재고 4.1 개월(전월 3.8 개월), 기존주택 중간가격 YoY +1.4%, 33 개월 연속 상승
- NAR 은 낮은 소비자신뢰도 및 완만한 고용성장이 구매자를 제약함을 언급.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올해 기존주택판매 +4%에 그칠 것으로 전망 하향. 신규주택판매는 +5%→보합 수준으로 전망 하향

PLTR, ORCL 등 S/W 반등세, GS 시작으로 1Q 어닝시즌 개시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SNDK	샌디스크	+11.8%	소프트웨어 기업 아틀라시안(+7.3%)을 대체해 4/20부터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. 더욱이 AI기반 스토리지 수요 확대, 낸드플래시 가격급등 등 우호적 환경 기대. 제프리스 등 주요 IB 목표주가 릴레이 상향
INTC	인텔	+4.5%	2주간 잇따른 호재 발표에 9거래일 연속 상승세 기록. 아일랜드 공장 지분 재매입, 일론 머스크 '테라팹' 프로젝트 참여, 구글의 차세대 제온(Xeon) 프로세서 채택 등이 대표적
PLTR	팔란티어	+3.3%	S/W주 저가매수세 유입되는 가운데,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추가 매수 소식과 트럼트 대통령의 국방 기술력 공개 극찬에 주가 상승. 앞서 마이클버리의 하락 베팅에도 불구, 아크는 자사 5개 ETF를 통해 약 85,500주를 매입
ORCL	오라클	+12.7%	유틸리티 전용 AI 플랫폼 '오라클 유틸리티 오파워(Opower)'의 성과와 자본 프로젝트 검토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'오라클 에이코넥스(Aconex)' 플랫폼 업데이트 발표. 오파워를 통해 '25년 고객들이 $369M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강조, 에너지/유틸리티 산업 특화 AI 역량 증명
GS	골드만삭스	-1.9%	1Q26 실적발표. 매출액 $17.23B(컨센 $16.93B), EPS $17.55(컨센 $16.39)로 어닝 서프라이즈. IB 부문 수수료 수익이 48%YoY 증가한 $2.84B 기록하며 실적 견인. 다만 FICC 부문의 부진, 소폭 상승한 대손충당금, 보통주자본(CET1) 비율의 큰 폭 하락 등에 주가 하락 마감
BBY	베스트바이	-2.4%	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 '매수'→'매도'로 두 단계 하향, TP $76→$59 하향 조정. 메모리 및 스토리지 원가 상승이 PC소비자가 인상으로 전이되어 수요 감소 및 마진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